

서양 수사학 방법론을 적용한 연푸(嚴復)의 『논세변지극(論世變之亟)』 분석

임지선* · 나민구**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착상
 - 1) 수사적 상황
 - 2) 저자와 독자 분석
 - 3) 텍스트 유형 분석
 - 4) 논거 찾기
3. 배열
 - 1) 들머리
 - 2) 밝히기
 - 3) 마무리
4. 표현
 - 1) 어휘 선택
 - 2) 대조법
5. 나오는 말

국문초록

수사학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학문 중 하나로, 단순히 설득의 기법, 재주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발전과 사회의 공정을 실현할 제도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학문이다. 서양 수사학은 고대에서부터 시작된 학문이지만, 그 핵심인 ‘설득’은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연구는 시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녔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교신저자)

으며, 설득 요소가 두드러진 산문을 서양의 수사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더 나아가 현대의 설득 능력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국의 지식인 옌푸(嚴復, 1854-1921)의 『논세변지극』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논세변지극』은 망국(亡國)의 위기에서 구국(救國)을 향한 지식인의 고뇌와 갈망이 묻어있는 동시에 진정한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독자에게 설득하는 글이다.

키워드: 논세변지극, 옌푸, 키케로, 수사학, 서양 수사학 방법론

1. 들어가는 말

아리스토텔레스¹⁾(2020: 7)는 『수사학』에서 수사학을 ‘주어진 경우에 가능한 모든 설득력 있는 요소를 찾아내는 능력’으로 규정한다. 서양의 수사학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 학문으로, 단순히 설득의 기법, 재주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발전과 사회의 공정을 실현할 제도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학문이다.²⁾

카임 페렐만(Chaim Perelman)(1912-1984)³⁾은 기존의 연설문뿐만 아니라, 문학 텍스트에서 판례집까지 이른바 설득을 목표로 하는 담론 일체를 수사학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오형엽 2007, 334). 1895년에 텐진(天津)에서 발행한 《직보(直報)》에 실린 옌푸(嚴復, 1854-1921)의 『논세변지극』은 망국(亡國)의 위기에서 구국(救國)을 향한 지식인의 고뇌와 갈망이 묻어있는 동시에 근대화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1) Aristoteles, B.C 384-322,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논리학, 윤리학, 정치철학 등 방대한 분야의 학문적 기초를 쌓은 인물.

2) 아리스토텔레스(2020: 7)는 말로 신뢰를 주는 방법에는 화자의 성품, 청중의 심리, 증명하는 말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논리적 추론, 성품과 미덕에 대한 이해, 감정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사학은 일종의 변증학, 윤리학, 정치학이라고 볼 수 있다.

3) 브뤼셀 대학의 법철학 교수. 수사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던 ‘논증’ 또는 ‘설득’의 문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논증의 수사학’을 부각했다(오형엽 2007: 333).

글이다. 카임 페렐만의 주장처럼 수사학 이론은 설득을 목표로 하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중국의 산문을 서양의 수사학적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한 편이다. 『논세변지극』은 산문에 해당하지만, 독자를 계몽하고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므로 이를 서양 수사학적 분석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 대상의 원문 출처는 王紹光(2019), 『中國精神讀本』, 질강문예출판사(浙江文藝出版社)이며, 유훈우(1998), 양일모(1992) 등 자료를 참고하여 이를 번역하였다.

먼저, 산문 및 희극 작품 등을 수사학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유이경(2022)은 한문 산문인 「존심양성설」을 수사적 시각으로 그 문장의 구성과 어휘 배열, 표현 기교 등을 분석하였고, 엄국현(2009)은 만해가 국권을 상실한 조선의 민중을 위로하고 식민지시대의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조국의 독립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어떤 수사법을 통해 드러내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나민구, 장천(2015)은 자오변산(趙本山)의 희극 작품을 “착상(Inventio)”, “배열(Dispositio)”, “표현(Elocutio)”, “암기(Memoria)”, “발표(Actio)” 등 다섯 가지 수사 영역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논세변지극』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연푸의 가치관과 서학에 대한 수용 태도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대부분 『논세변지극(論世變之亟)』은 단독 연구보다는 연푸의 전반적인 사상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수사학적 측면에는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현황의 한계와 기존의 다양한 수사학적 방법론 연구에 착안하여 『논세변지극』을 착상, 배열, 표현 등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한다.⁵⁾ 서양 수사학은 고대에서부터 시작된 학문이지만, 그 핵심인 ‘설득’은 지

4) 키케로가 주장한 연설가가 갖춰야 할 다섯 가지 과제로, 착상은 본격적 주장을 위한 논리적 증거 찾기, 배열은 착상 과정에서 찾은 증거를 주제에 맞춰 논리적으로 배열, 표현은 주장을 강조하고 독자를 설득하는데 적절한 표현을 찾는 것이다. 암기는 연설자가 발표를 하기 위해 내용과 구성을 기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표는 표정, 말투, 목소리 등으로 연설의 설득력을 높이는 단계다.

금까지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대에서는 참여 민주주의 정치 제도 발달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수사학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면서, 연설, 산문, 인터뷰, 소셜 네트워크 게시물 등 다양한 형식과 플랫폼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시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녔으며, 설득 요소가 두드러진 산문을 서양의 수사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더 나아가 현대의 설득 능력에 적용되는 것에 의의를 둔다.

2. 착상

키케로(Cicero, Marcus Tullius)⁶⁾(2007: 18)는 연설가가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착상, 배열, 표현, 기억, 발표로 구성했다. 수사학의 첫 단계인 ‘착상’이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 증거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을 찾는 단계다. 독자를 설득하고 감정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본 토대를 쌓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 수사적 상황

연설의 작성자가 설득 논거를 찾아낸다면, 분석자는 작성자가 어떤 상황에

5) 키케로의 “착상(Inventio)”, “배열(Dispositio)”, “표현(Elocutio)”, “암기(Memoria)”, “발표(Actio)” 중, 본고에서는 “암기”와 “발표” 부분을 생략하였다. 『논세변지극』이 연설자의 연설이 아닌 산문이므로, 연설자가 발표를 위해 떠올릴 목적으로 진행되는 “암기”와 연설자의 목소리, 표정, 몸짓으로 구성되는 마지막 단계 “발표”를 제하였다.

6) Cicero, B.C.106~B.C.43, 위대한 정치가이자 철학자 그리고 수사학자였다. 키케로는 수사학을 인문 교양학으로 끌어올린 대가로서, 『연설가에 대하여』(De Oratore), 『신의 본성에 관하여』(De Natura Deorum) 등의 저서가 있다. 키케로 저, 안재원 역, (2006), 『수사학』, 도서출판 길.

처해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어떤 말터의 논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밝히게 된다. 기존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이 의사소통상황이 이른바 “수사적 상황”이다.⁷⁾

『논세변지극』은 청일전쟁(1894)의 패배로 인해 극히 혼란한 국내의 정세가 모두 혼란한 시기에 발표되었다. 아편전쟁(鴉片戰爭; 1840-1842) 이래 중국은 서양과 계속해서 충돌을 빚으며, 사회·정치·경제 등의 각 방면에 혼란을 초래했다. 그 후, 청나라는 청일전쟁(淸日戰爭; 1894-1895)에서까지 처참하게 패배하며, 중국인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열강에 잠식당하여, 국권(國權) 추락 등 현실은 중국인들은 중화사상과 전통적 가치관, 세계관 등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9세기 중후반, 지식인들 사이에는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서양문명을 받아들인다는 양무운동(洋務運動)⁸⁾이 진행됐지만, 청일전쟁의 패배로 중화사상과 제국 질서는 완전히 붕괴하였고 지난 30여 년 동안 진행된 양무운동도 한계를 보이며 끝이 났다.

당시 지식인들은 오랫동안 진리라고 여겼던 전통 사상과 새로운 서양문명 사이에서 방황하면서도 이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했다. 그들은 험난한 근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방적으로 서구의 학문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 생산 주체로서 이를 재창조하기 시작했다.

2) 저자와 독자 분석

연푸(嚴復; 1853-1921)는 청말 지식인, 교육자이자 번역가로서, 1853년 푸저우에서 태어났다. 1877년 청나라 정부의 유학생으로 뽑혀 영국의 구(舊) 왕

7) 양태중(2003), 「키케로의 연설문 분석」, 『독일어문학』, 327, 325-345 참고.

8) 서양으로부터 선진적인 군사기술, 공업기술을 도입하여 부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서양의 기(器)만을 받아드리고, 중국의 사상과 유교 도덕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원(2019), 「엄복의 근대인식과 중·서학의 회통」, 『유교사상문화연구』, 169, 167-185.

립해군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그는 애초 유학의 목적인 해군 관계, 항해술 등 보다, 서양의 정치, 사회, 철학 등 다방면의 학문에 더 흥미를 보였다.

청일전쟁의 패배 이후, 그는 청나라의 심각한 민족적 위기를 느끼며 근대 중국의 사회 변혁 물결에 뛰어들었다. 그는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서방의 사회 체제와 가치관을 들여와야 한다고 제창하였다. 1895년에 텐진(天津)에서 발행한 《직보(直報)》에 『논세변지극(論世變之亟)』, 『원강(原強)』, 『벽한(辟韓)』, 『구망결론(救亡決論)』 등의 글을 발표하여, 봉건주의 전통 체제를 비난하고 근대중국의 사상적 해방운동을 고조시켰다.

그는 번역 분야에서도 매우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 뽑힌다.⁹⁾ 그는 역서인 『천연론(天演論)』¹⁰⁾, 『원부(原富)』¹¹⁾, 『군학이언(群學肄言)』¹²⁾, 『군기권계론(群己權界論)』,¹³⁾ 『법의(法意)』¹⁴⁾ 등을 발표하며, 서양의 정치학, 철학, 사회학, 정치경제학, 자연과학 등을 중국에 체계적으로 소개하였고, 이는 중국 근대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옌푸의 『천연론』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문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수많은 주석¹⁵⁾을 붙여 독자적인 해석과 나름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만큼 옌푸는 글로써 위기에 빠진 조국의 변혁을 갈망했다.

그렇다면, 『논세변지극』은 어떠한 독자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

9) 옌푸는 번역의 3대 원칙인 ‘신달아(信達雅)’를 만들었다. ‘신(信)’은 원문의 의미를 해치지 않고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며, ‘달(達)’은 원문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것이며, ‘아(雅)’는 격식 있고 적절한 어휘와 문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Thomas Huxley(1894), 『Evolution , Ethics , other Essays』

11) Adam Smith(1776), 『The wealth of Nations』

12) Herbert Spencer(1873), 『The Study of Sociology』

13) John Stuart Mill(1859), 『On Liberty』

14) Montesquieu, Charles Secondat(1748), 『De l'esprit des lois』

15) 復案(복안, 옌푸의 주석). ‘복안’ 속에는 옌푸가 며칠씩 고안하여 만든 고문식 신조어가 섞여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철학사의 여러 인물과 이론을 통해 서양의 학설과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대부들의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지평 위에서 전통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양일모(1992). 「현암 한전숙 교수 정년퇴임기념 특집호 : 엄복의 서학 수용방식과 개량주의적 한계」, 『철학논구』, 94, 78-101.

『논세변지극』의 발표 시기와 게재지로 미루어 보아, 주요 독자는 당시 중국의 지식인으로 볼 수 있다. 1895년은 중국이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해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급진파, 온건파, 전통주의파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즉,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진 지식인이 주요한 독자라고 볼 수 있다.

3) 텍스트 유형 분석

키케로(2007: 26)는 청중에 따라 연설을 칭찬연설(exornatio), 정치연설(deliberatio), 법정 연설(iudiciale)로 나누었다. 『논세변지극』의 수사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독자(청중) 분석과 텍스트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키케로(2006: 242-305)는 칭찬연설, 정치연설, 법정 연설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저, 키케로는 칭찬연설을 칭찬, 비난으로 나누었다. 덕과 관련된 것은 칭찬받고 악덕에 묶인 것은 비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칭찬연설은 즐기려는 청중을 대상으로 함으로 의심스러운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청중의 마음을 부드럽게 끌어안고 만족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치연설에서 청중은 의사 결정과 의견 개진 역할을 하므로 유용성에 그 목적을 둔다. 마지막으로, 법정 연설에서 청중은 지난 일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며, 연설 목적은 형평성에 있다.

양태중(2005a: 269)에 따르면, 한 텍스트가 반드시 하나의 특정 유형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텍스트의 유형 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다. 보통 연설자는 칭찬받을 일을 권유하고, 비난받을 일을 고발하기 때문에 칭찬과 비난을 목적으로 하는 식장 연설은 다른 텍스트의 기본이 된다.

『논세변지극』은 중국이 왜구의 세력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원인을 찾기 위해, 중국의 과거 제도, 우매화 정책, 중체서용 사상, 사대부 등 사회 폐단을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논세변지극』은 칭찬(비난) 텍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비난을 통해 독자들이 현재 중국에 존재하는 폐단의 원인을 깨닫도록 하고, 미래 대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청중은 의사 결정권을 부여받고 이 방안의 유용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즉, 『논세변지극』은 권유 목적을 가진 정치 텍스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 논거 찾기

키케로(2006: 75-77)에 의하면 신뢰는 ‘논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이 논거란 논고(論庫)¹⁶⁾에서 찾은 사안 자체나 그 바깥에서 찾은 타당성 있는 근거다.¹⁷⁾ 정치연설은 ‘유용성’, ‘실행가능성’ 말터에서 논거를 찾아야 한다.¹⁸⁾

[2]¹⁹⁾하지만, 재앙은 항상 예상 밖에서 온다. 서양인들이 갑자기 우리 사회에 침투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이를 계기로, 나는 사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장(典章) 제도에 대해 끝없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이제야 그 병폐를 알게 된 것은 제환공(桓公)이 통증을 느낀 후에야 치료를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16) 라틴어 원 단어는 locus(자리, 장소)로, ‘논거가 숨어 있는 장소’라는 의미이며 ‘말터’, ‘topic’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키케로 2006: 75)

17) “‘사안 내부에서 취한 것’이란 개념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언어 조작을 통해서 발견한 근거를 말하고, ‘사안 외부에서 취한 것’이란 언어 외부에 있는 증거물을 지시한다.” 앞의 책, 75쪽 참조.

18) “권유하는 사람은 그 일이 유용하고 실행할 수도 있음을 보여야 하고, 제지하는 사람은 그 일이 유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실행할 수 없음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키케로 2004: 10).

19) 『논세변지극』은 총 6문단으로 이뤄져 있으며, 예문의 앞 괄호는 해당 예문이 속한 문단을 표시했다.

[3] 서양인이 증기기관, 병기를 잘 만드는 것과 천문역산(天文歷算)에 정통한 것은 그들이 잘하는 것 중 하나일 뿐, 서방 사회가 진정으로 발전한 이유는 따로 있다.

[6] 서양인들은 처음 중국에 왔을 때 사람을 해하는 것(아편)을 들고 왔고, 이로써 중국과 원수가 되었다.

키케로(2004: 89)에 따르면 실행 가능성을 논할 때 권유의 경우 그 일이 어렵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하지만, 반대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때는 실행의 어려움을 강조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설득을 강화하기 위해 풍부한 사례를 쓰는 게 도움이 된다.²⁰⁾

본 글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던 양무운동이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제지’에 속한다. 본 글의 문단 [3]에서는 나라의 부강을 위해 중국의 전통 사상을 유지하되 서양의 과학기술만 응용한다는 중체서용이 유용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문단 [2], [6]에서는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실행해 온 과거 제도가 실제로는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었고, 결국 중국이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고 말한다.

3. 배열

키케로(2004: 20)가 말한 수사학의 5가지 규범인 “착상-배열-표현-기억-발표” 중, “배열”은 “착상” 과정에서 분석한 내용과 자료를 주제에 맞춰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양태중(2005b, 129)이 한국어로 번역한 들머리(서론), 밝히기(본론), 마무리(결론)으로 나누어, 저자가 독자

20) 최신 사례를 사용하면 독자의 이해를 돕는 효과가 있으며, 역사적 사례는 무게감을 실을 수 있다. (키케로 2004: 89).

를 설득하기 위해 어떠한 수사적 기법을 사용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²¹⁾

배열	기법 및 목적	내용
들머리	관심 끌기 및 이해 돕기	[1] 세상의 빠른 변화에 탄식하며 관심 끌기, 운회(運會) 개념 이해 돕기
밝히기	원인과 병폐 분석	[2] 중국과 서양이 사물의 이치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 및 중국 과거 제도와 우매화 정책의 병폐 [3] 서양이 부강한 진짜 원인에 대한 문제 제기 [4] 자유 및 가치관에서의 중국과 서양의 차이
마무리	사상 전환 중요성 강조	[5]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대부 태도 비난 [6] 나라의 사분오열 위기 강조

<표1> 배열 구조

1) 들머리

키케로(2006: 136)에 따르면, 들머리는 연설의 시작²²⁾이며 청중의 호감을 얻고, 이해를 도우며, 관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논세변지극』의 서론에서는 현재 세대에 대한 탄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이어, 본격적으로 논거를 서술하기 전, 대부분의 독자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타파하는 주장을 펼쳐 독자의 주의력을 환기하는 동시에 공감대 형성 및 문제의식을 확립한다.

[1] 아!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니, 진나라 이래 이렇게 빠르게 변

21) 키케로는 서론인 ‘들머리’와 결론인 ‘마무리’ 외에, 본론을 증명의 전제와 증명 부분인 ‘얼거리’와 ‘밝히기’로 나누었다. (양태중 2005b: 130). 산문인 『논세변지극』은 연설문에 비해 글이 비교적 짧아 본론 부분을 ‘밝히기’ 하나로 합쳤다.

22) “연설에서 서론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사안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는 다섯 종류이다: 말하기에 명예로운 것(genus honestum),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것(admirabile), 가치가 떨어지는 것(humile), 청중의 호의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것 또는 그 반대이기도 한 것(anceps), 청중이 이해하기에 까다롭고 어려운 것(obscurum)이 그것들이다.” (키케로 2006: 137)

화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운회(運會, 시대의 흐름)²³⁾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성인(聖人)조차 이 흐름의 일부일 뿐, 이를 바꿀 수는 없다. 성인들은 그저 시세의 흐름을 알고 미래를 예견할 뿐이다. (중략) 이는 마치 지금 중국과 일본이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 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생긴 원인이 아니라는 것과 같지 않은가!

키케로(2004: 44)는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 필요한 일, 그 사안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본 글의 문단 [1]은 세상의 빠른 변화에 대한 탄식으로 첫 문장을 시작하며,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어, 옌푸는 당시 천명결정론(天命決定論), 성인군주론(聖人君主論)이 지배하고 있던 중국사회의 통념을 깨는 의견을 설파한다. 옌푸는 이를 비판하며 역사의 변화에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운회(運會) 개념을 제시하며, 현재 중국이 마주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옌푸는 중일전쟁을 예시를 들어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독자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동시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독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표현한다.

본 글의 들머리에서는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자신이 말하게 될 전체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이해를 돕는 목적에 도달해, 독자가 본론에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었다.

2) 밝히기

키케로(2007: 50)에 따르면, ‘밝히기’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신뢰를

23) 전통적인 중국 철학 개념인 성인사관(聖人史觀) 비판을 통해, 옌푸는 역사의 변화는 인간의 의지가 아닌 객관적 법칙에 의해 전개되며, 이를 ‘운회(運會)’라고 불렀다. 성인은 그저 이 ‘운회’의 법칙을 파악하며 흐름에 순응할 뿐이다. 양일모(1992), 「염복의 서학 수용방식과 개량주의적 한계」, 『哲學論究』, 86, 78-101.

획득하기 위해 논거를 찾아 알맞게 배열하는 핵심 부분이다.²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논증이 생략삼단논법과 예증법에 국한된다면 페렐만이 주장한 논증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설득기법으로 분류된다.²⁵⁾ 본고는 『논세변지극』의 밝히기 부분을 ‘인과 관계’ 분석과 ‘수사적 삼단논법’으로 분석해본다.

2.1) 인과 관계

페렐만은 로고스의 강화 전략으로 연역법, 귀납법, 인과 관계, 상호 관련성, 개념의 해체 등을 제안했다. 『논세변지극』에서는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논리적으로 밝힘으로써 주장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다.

[2] 물질이 부족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쟁은 사회 안정의 큰 화근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어 현실에 안주하도록 하려 한다.

[2] 팔고문(八股文)²⁶⁾이라는 그물을 온 천하에 펼쳐, 총명하고 자신의 주관에 있는 자를 모두 잡는다. 그중 간혹 배를 삼킬 수밖에 없는 대어(능력 있는 인재)가 그물에서 빠져나와도 이미 좌절을 당해 자신감을 잃었으니, 어찌 파란을 일으키겠는가! 슬프도다! 그야말로 성인이 천하의 사람들을 속박하는

24) 키케로는 핵심 본론을 “신뢰획득”과 “논증”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엄밀히 따지면 착상의 영역에 속하는 신뢰획득을 본문에서 다루는 이유는 신뢰 획득을 위한 논거가 논증에 들어갈 내용이기 때문이다. 즉, 논증 설명에 앞서 “논거 찾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키케로 2007, 49)

25) 김상희(2011), 「논증적 글쓰기의 수사학적 접근」, 『수사학』, 34, 27-59.

26) 명(明)·청(淸) 시대 과거(科擧)의 답안용으로 채택된 특별한 형식의 문장. 과거에 불기 위해 수험생은 지정된 예문을 암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창의성이나 사고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것으로, 이는 분쟁을 억누르고 화를 없애는 가장 고명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백성의 지혜는 날로 낮아지고 백성의 힘은 날로 쇠약해진다. 결국, 외국과 하루도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원인: 사회의 혼란 방지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우매화 정책을 펼쳐 백성이 현실에 안주하고 발전을 도모할 기회를 차단한다. 또한, 과거 제도를 통해 천편일률적인 지식을 강조하여, 인재들의 창의성과 주관을 억누른다.

결과: 백성의 지혜는 날로 낮아지고, 역량이 쇠약해져, 외세의 침략에 맞서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옌푸는 문단 [2]에서 서양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이 외세의 침략 앞에 맥없이 무너진 원인을 지적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서양과 달리, 중국은 당시 천명결정론(天命決定論), 성인군주론(聖人君主論)이 지배적인 사회적 통념이었다. 통치자들은 국민이 계몽, 발전하게 되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기득권을 잃을 것이 두려워, 성인의 말씀을 이용하여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도록 했다.²⁷⁾ 문단 [2]를 통해, 저자는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밝힘으로써, 인과 관계를 입증하고 아울러 뒤에 나올 해결 방안에 대한 설득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2.2) 삼단논법

키케로(2007: 62)에 따르면, 논증의 유형에는 ‘직접 논증’과 ‘간접 논증’이 있는데, 삼단논법은 ‘직접 논증’에 속한다. 직접 논증은 먼저, 논증에서 증명

27) 옌푸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유학(中學, 舊學)은 훈고학, 성리학 및 팔고문 등에 의한 과거 제도일 뿐, 성인 또는 유학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유혼우(1998), 「엄복의 서학구망론(西學救亡論)과 존공독경론(尊孔讀經論)」, 『孔子學』, 65, 45-66.

하려는 명제 제시, 논증을 뒷받침할 논거 선택, 논거 증명, 마지막으로 명제로 돌아가 결론 도출로 진행된다.

[3] 지금의 오랑캐는 더는 예전에 생각하던 오랑캐가 아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랑캐라고 부르는 서양인들이 계산과 기술에만 능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서양인이 증기기관, 병기를 잘 만드는 것과 천문역산(天文歷算)에 정통한 것은 그들이 잘하는 것 중 하나일 뿐, 서방 사회가 진정으로 발전한 이유는 따로 있다. 요점만 말하면, 서양은 학술에 있어 사실을 추구하고, 형법과 통치에 있어 공정을 추구한다. 이는 중국의 초기 정책 이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하고 우리는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자유’에 있다.

[4] 자유는 중국의 성현(聖賢)들이 두려워하며 교육한 적이 없는 개념이다.²⁸⁾

대전제: 서양이 진정으로 부강할 수 있는 이유는 ‘자유’라는 가치관 때문이다.

소전제: 중국은 그러한 자유 개념을 추구하지 않는다.

결론: 중국은 부강해질 수 없다.²⁹⁾

28) 옌푸는 독자가 중국에서 매우 생소한 ‘자유’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의 전통과 경전에서 이와 비슷한 개념인 충서(忠恕)와 혈구지도(絜矩之道)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서(恕) 또는 혈구(絜矩)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한정되어 있지만, 서양의 자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확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恕) 또는 혈구(絜矩)는 자유와 비슷한 개념이지 결코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양일모(1992), 「현암 한전숙 교수 정년퇴임기념 특집호 : 엄복의 서학 수용방식과 개량주의적 한계」, 『철학논구』, 52, 78-101.

29) 법치(法治)보다 인치(人治)를 더 중시하는 중국의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 결과 사람의 재능을 못 쓰게 만들고 역량을 분산시켰으며, 이것이 곧 중국의 쇠락을 가져왔다. 따라서, 부국과 부강의 관건은 ‘자유’에 여하에 달려 있다. 유훈우(1998), 「엄복의 서학구망론(西學救亡論)과 존공독경론(尊孔讀經論)」, 『孔子學』, 53, 45-66.

문단 [3]에서는 중국인이 서양인에 대해 갖는 잘못된 편견을 지적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부강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과 군사력의 발전이 아니라, ‘자유’라는 가치에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어, 문단 [4]에서는 중국에는 이러한 ‘자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제기하며, 결국 이로 인해 중국은 부강해질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는 『논세변지극』 전반에 걸쳐 옌푸가 비난하고 있는 중체서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며, 동시에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 정치적 이념, 사상을 함께 들여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4] 서양인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늘이 부여한 권리인 자유를 얻어야만 완전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자유가 있고, 국가마다 자유를 가지고 있어 법으로 그 자유를 서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할 뿐이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며, 윤리 도덕을 위배하는 것이다. 타인을 살해, 상해, 재물을 손괴하는 것 역시 자유를 침해하는 극한의 예시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군주라 하더라도 인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대전제: 자유는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권리다.

소전제: 하늘이 부여한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결론: 국가도 개인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문단 [4]에서는 앞의 내용에 이어 ‘자유’ 개념에 대해 더욱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본 글의 밝히기 부분에서는 중국이 서양의 침략을 받은 내부적 인과 관계 지적하고, 이어 삼단논법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밝히기 부분에는 옌푸가 중체서용 사상을 반대하는 이유와 『논세변지극』의 핵심 개념인 ‘자유’를 언급함으로써 서양의 사상과 가치관에 대한 중요성을 잘 강조하고 있다.

3) 마무리

키케로(2006: 85)에 따르면, 연설가는 서론과 결론에서 주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데, 이러한 감정 표현이 서론에서는 독자의 관심과 호의를 유도했다면, 결론에서는 자신에게는 독자로부터 동정 (misericordia)과 호의 (benevolentia)를, 상대방에게는 증오(odium)와 질투(invidia)가 일어나도록 청중의 감정을 조작해야 한다.³⁰⁾ 이를 위해, 키케로(2006: 192)는 연설 구성의 마지막 부분을 ‘강조’와 ‘요약’으로 나누었다.

본 글의 마무리 부분은 [5], [6]까지 총 두 문단이다. 『논세변지극』의 마무리 부분은 강조를 통해 독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5] 천지의 기세는 한 번 시작되면 억제할 수 없다. 사대부가 자기의 욕심만으로 이를 거스르려 해도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6] 사대부들은 외국 침략 세력 앞에서 벌벌 떨며 비열하게 고개를 숙이고 적극적으로 나라를 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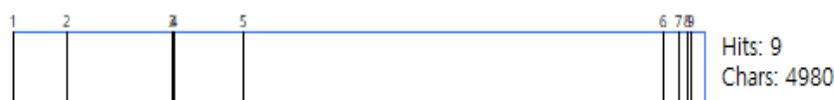
[6]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다. 이게 무엇 때문이겠는가?

키케로(2006: 202)에 의하면 사안의 강조는 ‘자연적인 것’, ‘유용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유용의 관점에서 사람은 신, 조국, 부모에 대한 고마움 혹은 형제,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의 사랑, 혹은 덕목과 공동체 결속에 기여하

30) 연설의 ‘시작’과 ‘마무리’ 모두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연설 ‘시작’이 청중의 관심, 호감 사기 및 이해 돕기에 있다면, 연설의 ‘마무리’는 청중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특정 목적과 의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의 주장을 극대화하는 ‘강조’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키케로 2006: 193)

는 명예심에 의해 움직이는데, 이러한 덕목을 짓밟은 사람에게는 증오가 일어난다. 본 글의 얼거리(서론)에서는 세태의 빠른 변화에 대한 탄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이끌었다면, 결론에서는 구체적인 비난의 대상을 언급하며 독자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이끌고 있다.

마무리 부분 [5],[6] 문단에서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외세 앞에 무릎 꿇고 조국을 팔아버린 사대부를 날카롭게 비난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의 결속을 저해하고 조국에 대한 존경을 짓밟은 것으로 독자로부터 증오심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그는 마무리 부분에서 서양 열강이 사방에서 중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에도 변화하지 않는 작금의 사회에 대한 탄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강한 파토스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1〉 어휘분석 툴 ‘Antconc’³¹⁾의 concordance plot³²⁾

어휘분석 툴인 ‘Antconc’를 이용하여 탄식 어구의 분포 구조를 살펴본 결과, 글의 마지막 부분으로 향하면서 빈도가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그림에 따르면 본 글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감정 호소로 처음에 독자의 관심을 끌고, 중간에는 비교적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했다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감정적 호소가 더욱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 일본 와세다 대학의 Laurence Anthony 교수가 개발한 무료 소프트웨어로, 코퍼스 검색, 어휘 통계, 키워드 산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강병규(2013), 「중국어 코퍼스 분석을 위한 검색 프로그램 비교 고찰-WordSmith Tools 6.0과 AntConc 3.2.4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135, 131-163.

32) Antconc 프로그램 중, 특정 어휘가 전체 텍스트 중 어디에 분포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다.

4. 표현

키케로(2006: 103)에 의하면 ‘표현’ 논의는 표현 방식, 표현 단위, 표현의 덕목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표현 방식은 ‘자연(kata physin)’과 ‘조작(para physin)’으로 나뉘고³³⁾, 둘째, 표현 단위는 개별 단어(형태론적 층위)와 문장(통사론적 층위)로 구별하며, 마지막으로 표현의 덕목에는 명확성, 간결성, 신뢰성, 선명성, 달콤함이 있다.

본고에서는 표현 단위에 따른 어휘 선택과 수사학적 방법으로 『논세변지극』의 표현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어휘 선택

저자가 어떠한 어휘를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독자를 설득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저자는 『논세변지극』에서 총 12번에 걸쳐 ‘자유(自由)’를 언급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다. 옌푸는 서양이 기술, 군사력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 도덕, 가치관에서도 중국을 앞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고, 그 핵심이 바로 ‘자유’ 가치관이라고 주장했다. 즉, 중국이 서양처럼 부강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자유’의 부재를 뽑았다.

어휘(중문)	어휘(국문)	출현 빈도수
中国	중국	22
自由	자유	12
圣人	성인	8
禍	화	8
危	위기	5

<표2> 『논세변지극』 주요 어휘 빈출

33) ‘자연(kata physin)’은 보통사람들도 사용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며, ‘조작(para physin)’은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규칙에 따른 것이다. (키케로 2007: 31)

[5] 지난 30년 동안 화(禍)가 많이 일어난 것이 모두 사람이 억지로 시대의 흐름을 억제하려고 일어난 것 아닌가?

[6] 구시대적인 그들은 망국을 얘기하면서도 나라가 망하면 자신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은 모른다.

[6] 공자의 ‘관직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무엇이든 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대부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나라의 멸망과 사분오열까지 초래해 견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화(禍)’와 ‘위기(危)’는 각각 8번, 5번 언급되었다. 본 글은 망국(亡國)의 위기감이 잔뜩 고조되었던 청일전쟁 발발 직후에 발표되었다. 전통 가치관의 타파를 이루지 못하면 조국의 사분오열(四分五裂)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키케로(2006: 300)가 정책 연설에서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면 닥쳐올 위기를 경고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2) 대조법

아리스토텔레스(2020: 102-103)는 연설문의 문체를 “느슨하게 계속 이어지는 문체”와 “간결하게 완결된 문체”로 나눴는데, 후자는 문장 전체가 한 번에 들어올 정도로 길지 않고 그 자체에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조법은 한 문장에 서로 대립하는 두 절이 들어가는데, 이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대립적인 내용으로 즐거움을 준다.

[4] 중국은 삼강을 가장 중시하지만, 서양을 평등을 중시한다. 중국은 혈육을 중시하지만, 서양은 덕행이 훌륭한 사람을 중시한다. 중국은 효로써 나라

를 다스리지만, 서양은 공정과 공평함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중국은 임금을 존중하지만, 서양은 백성을 높인다. 중국은 통일된 정령(政令)으로 통치하려 하지만, 서양은 서로 다른 당을 결성하고 지역별로 통치하려 한다. 중국인은 비난을 회피하려 하지만, 서양인은 타인의 비난을 중시한다. 중국은 재물을 사용에 있어 지출을 줄이려 하지만, 서양은 재물을 늘리는 것에 중시한다. 중국인은 소박, 검소를 중시하지만, 서양인은 즐거움을 추구한다. 중국인은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서양은 적극적인 태도를 미덕으로 여긴다. 중국의 예절 의식은 복잡하지만, 서양은 간소화하려고 한다. 중국은 박학다식한 것을 중시하고, 서양은 새로운 지식을 중시한다. 재난을 맞닥트렸을 때 중국은 하늘의 뜻에 맡기지만, 서양은 인력에 의지한다.

논리 범주	중국(삼강오륜)	서양(평등, 자유)
인간관계	가족, 친인척	덕행이 훌륭한 사람
치국의 기본	효도	공정, 평등
정치적 존중 대상	군주	국민
통치 방법	통일된 정령(政令)	지역별 통치
비난 태도	회피, 감춤	적극적 비판
재물 축적	지출 감소	수입 증대
생활 습관	소박, 검소	현재의 즐거움 추구
미덕 가치	겸손, 겸허	적극적, 직접적
예절 의식	복잡	간소화
학문적 가치	박학다식	창의성, 신지식
재난 대응	하늘의 운명에 맡김	인력에 맡김

〈표3〉 11개 논리 범주에 관한 중국과 서양의 비교

옌푸는 11개의 범주에 걸쳐 삼강오륜 중심의 중국과 자유 중심의 서양을 비교하고 있다. 비록 비교 대상은 11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러한 가치관의 근본은 중국은 유교의 도덕 사상인 삼강오륜, 반면 서양은 자유, 공정

으로 귀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옌푸가 이렇게 중국과 서양을 비교하는 것은 양자의 우열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사상은 유지한 채 서양의 선진 기술만 가져오면 중국도 부강해질 것이라는 증체서용론을 비난하는 것이다.³⁴⁾

『논세변지극』에서 나타난 이러한 대조법은 수사학적 측면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앞에서 중국과 서양이 사물의 이치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와 서양이 부강한 원인으로 자유와 가치관을 지목했다. 이어, 해당 문단에서 대조법으로 중국과 서양의 구체적인 논리 범주를 비교하여 독자가 앞선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고, 저자가 제시한 논리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

위의 11개 범주 외에도 문장 전반에 걸쳐 중국과 서양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아, 대조법은 『논세변지극』의 두드러지는 문장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5. 나오는 말

펜은 총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다. 무력, 총으로 공포감을 형성해 사람을 통제하는 것보다 펜으로 사람들을 계몽하고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옌푸가 『논세변지극』 어떠한 수사학적 설득 요소를 사용했는지 ‘착상’, ‘배열’,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착상’ 부분에서는 주제 설

34) 옌푸가 이 글에서 중국과 서양의 우열(優劣)을 논하는 게 분명한데, 성급히 우열을 나누는 건 아니라고 언급한다. 이는 옌푸가 대비 비교법을 통해 당시 가장 성행하던 증체서용론을 비판하기 위함이다. 유흔우(1998), 「엄복의 서학구망론(西學救亡論)과 존공독경론(尊孔讀經論)」, 『孔子學』, 57, 45-66.

정 및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계획을 설립하는 단계로써, 글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배열’ 부분에서는 ‘착상’에서 수집한 자료를 주제에 맞춰 구조적으로 논증을 펼치는 단계다. 들머리 부분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에 탄식하며 독자의 관심을 끌고, 운회 개념을 청일전쟁에 비유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밝히기’에서는 인과 관계 밝히기와 삼단논법으로 중국이 위기에 직면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한다. ‘마무리’에서는 구체적인 비난 대상인 사대부를 날카롭게 비난하며, 망국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상의 전환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문장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감정적 호소가 짙어지는 특징을 어휘분석 톨로 확인하였다.

‘표현’ 부분에서는 설득의 효과를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글의 어휘 선택과 수사적 기법을 분석하였다. ‘자유’라는 핵심 용어를 12번 사용하며, 중체서용론을 비난하는 동시에 독자에게 답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글에서는 서양과 중국을 11개 범주에 걸쳐 대조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자연스럽게 중체서용론을 의심하게 만드는 효과를 얻었다.

옌푸는 아편전쟁, 청일전쟁의 패배로 중화사상 체계의 붕괴와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혼란을 겪는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망국의 위기감을 조성하며 그들을 각성하도록 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옌푸에 대해 “중국 공산당 탄생 이전, 서방을 통해 진리를 추구한 인물”이라고 평했으며, 강유웨이(康有爲)³⁵⁾는 “서학에 정통한 일인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양의 학술·사상을 소개하고 글로써 중국의 위기를 호소하였으며, 청말(清末)의 개혁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옌푸를 통해 ‘옌’이 가져오는 ‘설득’의 힘이 한 국가를 바꾸고 후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35) 청말의 학자, 정치가(1858-1927), 무술변법을 제창한 개혁 지도자로, ‘변법자강’ 개혁론을 주장했다.

參考文獻

- Wang, M. , S. Wang, 中国精神读本, 浙江文艺出版社, 杭州, 2019.
- 강병규, 「중국어 코퍼스 분석을 위한 검색 프로그램 비교 고찰 -WordSmith Tools 6.0과 AntConc 3.2.4를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0(44), 131-163, 2013.
- 김상희, 「논증적 글쓰기의 수사학적 접근」, 『수사학』, 0(14), 27-59, 2011.
- 김중윤, 「엄복(嚴復)의 전통 인식 및 서학(西學)수용의 태도」, 『中國學報』, 37(1), 197-218, 1997.
- 나민구, 「용법이 비슷한 몇 가지 중국수사법 분석」, 『中國研究』, 28(-), 3-20, 2001.
- _____.ZHANGQUAN, 「從西方修辭學方法論的角度分析趙本山的小品《捐助》」, 『中國學報』, 72(-), 77-99, 2015.
- _____.고은미, 「마윈 “CEO 퇴임 연설” 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 『수사학』, 0(29), 81-110, 2017.
- _____.박윤희, 「공자사상에 기반을 둔 중국 TV광고언어 분석 - 시진핑 시대의 공익광고 중심으로」, 『中國學研究』, -(82), 95-123, 2017.
- 양일모, 「엄복의 서학 수용방식과 개량주의적 한계」, 『哲學論究』, 20(-), 78-101, 1992.
- 양태중, 「문화상호수사학을 위한 격서 분석-최치원의 격황소서에 나타난 착상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31집, 265-285, 2005a.
- _____. 「키케로의 Topica 연구 - 수사적 논증의 뿌리를 찾아서-」, 『독어학』, 12(-), 127-147, 2005b.
- _____. 「수사학적 관점에서 본 텍스트의 종류」, 『텍스트언어학』, 0(16), 1-19, 2004.
- _____. 「키케로의 연설문 분석」, 『독일어문학』, 23(-), 325-345, 2003.
- 엄국현, 「식민지시대 검열제도와 『님의침묵』의 수사학」, 『韓國文學論叢』, 51(-), 103-159, 2009.

- 오형엽, 「현대문학비평과 논증의 수사학」, 『어문논집』, -(56), 325-362, 2007.
- 유이경, 「노경임·강항 「존심양성설」 의 수사적 탐구」, 『수사학』, -(43), 83-112, 2022.
- 유훈우, 「엄복의 서학구망론(西學救亡論)과 존공독경론(尊孔讀經論)」, 『孔子學』, 3(-), 45-66, 1998.
- 윤지원, 「엄복의 근대인식과 중·서학의 회통」, 『유교사상문화연구』, 0(76), 167-185, 2019.
- 키케로 저, 양태중 역, 『화술의 법칙』, 유로서적, 2004.
- _____ 저, 안재원 역, 『수사학』, 도서출판 길, 2006.
- _____ 저, 양태중 역, 『생각의 수사학』, 유로서적, 2007.
- 아리스토텔레스 저, 박문재 역,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현대지성, 파주, 2020.

Abstract

A Western Rhetorical Methodology Analysis of Yanfu's "About rapid changes in the world"

Lim, Ji Sun · Na, Min gu

Rhetoric is one of the oldest disciplines in the world that originated in ancient Greece, and was created not simply to study the techniques and tricks of persuasion, but to create a system to realize community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Rhetoric is a traditional study that originated in the West, but its core, 'persuasion', has so far been recognized as a very important ability.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subject of rhetoric research, which was limited to speeches, to prose with an important value of the times, and analyze it from a rhetorical perspective, and to study Yanfu's (1854-1921), a Chinese intellectual. "About rapid changes in the world" is an article that persuades the reader of his views on the path to a true wealth and strength while at the same time bearing the anguish and longing of intellectuals toward the salvation from the crisis of the country. In ancient times, the importance of rhetoric has emer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a participatory democratic political system, but in modern society, individuals themselves have become a brand, and the ability to persuade others by expressing their opinions in various forms and platforms such as speeches, prose, interviews, and social network posts is increasingly emphasiz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ands the research subject limited to speeches into prose with important value of the times, analyzes it from a rhetorical perspective, and further applies to modern persuasion.

Key words : *About Rapid Changes in the World*, Yanfu., Cicero, rhetoric, Western Rhetorical Methodology

투 고 일 : 2022. 10. 10. / 심 사 일 : 2022. 10. 15. ~ 2022. 11. 15. / 게재확정일 : 2022. 11. 20.